

사) 한국환경준설학회 뉴스레터

KEDS NEWSLETTER

고문: 류재근 홍기훈
 회장: 양동범
 부회장: 공 준 김경련
 김영석 김정환 김홍선
 박재우 신원식 이재관
 이호식 정창수
 감사: 김석현 손민호
 발행: 한국환경준설학회
 편집위원회

후원 사) 한국환경학술단체연합회 (회장 류재근)

Http://www.k-environmentaldredging.or.kr (우) 137-773 서울 서초구 서운로 62의 10동601호
 (투고 안내: 총무이사 최진영: 전화: 031-400-6152,6185 팩스: 031-408-4493 E-mail: keds2011@naver.com)

목차

- 발간사
- 1 춘계학술대회 개최 안내
- 2 해외퇴적물 관리 기술/학술 대회
- 3 퇴적물 관련 국제회의
- 4 언론에서 보는 국내 준설기사
- 5 국외 준설기사
- 6 회원동향
- 입회원서
- 단체회원소개



발간사

한국환경준설학회 회원 여러분 그간 안녕하십니까?

우리 학회는 전문가들 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환경준설을 위한 과학, 기술, 정책, 법, 제도의 공통적인 발전을 추구하고 우리나라 환경준설사업의 내실 있는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모인 학술단체입니다. 지난 2016년 11월 13일에는 춘계학술대회를 프레스던트호텔에서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이 학술대회는 선진환경기술과 준설에 대한 학술발표, 준설물질의 새로운 가치 창조/유효활용에 대한 심포지움, 종합토론 등 다양한 학술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었으며 산업계, 정부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등 관련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하여 가치 있는 성과를 수확하였습니다. 발표자와 참가자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학회는 회원 상호간의 정보 교환, 친목 도모를 위해 뉴스레터를 정기적으로 발간합니다. 이 뉴스레터를 주위에 게시는 관련 산업계/정부/학계 여러분들께 회람하여 주시면 더 넓은 환경준설 관련 커뮤니티를 형성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학회의 기관지인 “한국환경준설학회지”에 논문, 기술보고, 사업사례 등을 많이 발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뉴스레터와 학술지는 학회 홈페이지에서도 접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따뜻한 이해와 관심,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 드리며, 하시는 일마다 큰 성취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기원합니다.

2016년 4월 7일
 (사)한국환경준설학회
 회장 양동범 배상
 dbyang@kiost.ac.kr

1 한국환경준설학회 2016년 춘계학술대회 및 심포지엄

- 주최: (사)한국환경준설학회
- 후원: 해양수산부,
(사)한국환경학술단체연합회,
(사)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사)환경영향평가협회, 워터저널
- 일시: 2016년 4월 29일(금) 예정
- 장소: 프리지던트 호텔 (서울 시청 앞)
- 참석: 산업계, 정부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등 관계자 50명
- 협찬: 단체회원사

2 해외 퇴적물 관리 기술/학술 대회

제 5회 퇴적물 관리 국제 심포지엄 (The 5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Sediment Management (I2SM)) 10 -13 July 2016, Montréal, Québec, Canada, <http://www.i2sm.ca/>

제 8차 해양오염 및 환경독성 국제 컨퍼런스 (8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arine Pollution and Ecotoxicology) 20-24 June, Hong Kong

오염퇴적물 정화복원 국제 컨퍼런스 (International conference of Remediation of Contaminated Sediment) 09-12 Jan 2017, Sheraton New Orleans Hotel, New Orleans, USA.

3 퇴적물 관련 국제회의

제 38차 런던협약 및 제 11차 런던의정서 합동 당사국회의 개최 (London Convention) / (London Protocol) 19-23 September 2016, London, UK.

제 9차 로스톡 준설 세미나 (The 9th Rostock dredged material seminar) 27 - 28 September 2016, Rostock, Germany www.auf.uni-rostock.de

4 언론에서 보는 국내 준설기사¹

하천

경남 합천군 2010년부터 2년간 준설작업을 벌였지만 14년부터 재퇴적 현상이 일어났음. 세굴현상으로 인해, 또 황강에서 내려온 자갈과 모래들로 인해 재퇴적 현상이 일어났다고 보고 있음. 항녕합천보 하류 쪽은 수심이 1m정도 밖에 안되 어선이 지나가기 힘들 정도로 재퇴적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현재 강 가장자리뿐만 아니라 중앙부분에도 재퇴적 현상이 일어나 재준설이 필요한 상황임 (오마이뉴스, 2016-02-29)

세종시 금남면 세종시는 금남면 달전리에 위치한 삼성천 하천준설공사를 완료함. 하천에 쌓여있는 토사를 준설해 유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수해를 예방하기 위해 준설함. (시민일보, 2016-2-26)

부산시 동천,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2015년 한 해 동안 대기, 하천수, 퇴적물 등 환경매체 다이옥신 오염 실태 조사를 실시함. 그중 공업지역인 감전천의 경우 다이옥신의 농도가 평균 1.251 pg-TEQ/L로 조사돼 일본의 하천수질기준(1 pg-TEQ/L)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남. 다이옥신의 경우 하천퇴적물에서 물로 용출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천 퇴적물의 준설이 시급한 상황임. 현재 250억을 투입해 준설할 예정임. (뉴데일리, 2016-02-02)

부산시 동천 부산시는 도심 하천인 동천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수질 개선을 위해 2월부터 하상 준설공사를 시행함.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동천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백탁현상이 오수 유입과 강바닥의 퇴적물 때문이라고 밝힘. 동천 생태복원 첫 사업으로 시행되는 하상 준설공사는 31억5000만원을 들여 동천 광무교에서 범일교 구간까지 진행된다. 부산시는 오는 6월까지 이 일대에서 3만3500m³의 오염토를 준설할 계획임. (파이널뉴스, 2016-01-31)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 공사는 필리핀 정부가 대외경제협력기구 차관으로 추진하는 팜팡가 주 통합재난위험 감축 및 기후변화적응사업의 설계, 감리를 수행한다고 밝힘. 이 사업은 23개의 국가가 협력하고,

¹ 학회에서 기사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음.

하천에 대한 준설과 홍수 방지용 제방 및 교량축소, 배수문 보수 등을 추진하는 사업임. 현재 경호엔지니어링과 협력해 오는 2월 사업에 착수할 예정임 (중부일보, 2016-01-20)

경북 구미시 대법원 3부는 준설선을 임의로 개조해 침몰시킨 혐의로 기소된 준설공사업체 D사 대표 김모(7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힘. 김씨는 분리 식 부력탱크를 일체형으로 바꾸고 경유탱크를 불법 설치한 36t급 선박을 낙동강 살리기 사업 15공구 준설공사에 투입했는데, 불법 구조변경 탓에 들어찬 강물로 배가 가라앉았고 병커A유 1천970l가 유출되었음. (연합뉴스, 2015-12-09)

부산 부산 신항 건설 후 모래 퇴적이 빨라지면서 진우~신자도로 다니는 하루 1000여 척이 전복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하지만 예산 확보가 어려워 방치되어 있음. 강서구가 두 차례에 걸쳐 해당 구간의 토사 준설 공사를 진행했음에도 퇴적도는 늘고 있으며, 철새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내년 3월까지 공사가 일절 금지되었음 (국제신문, 2015-12-15)

부산 강서구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인근 해역에서 해상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구를 없애고자 준설 공사가 이루어짐. 하지만 후속 공사가 이뤄지지 않아 수 년 내 다시 퇴적물이 쌓이면서 수역 원의 형세만 날린 결과를 가져옴. 부산대 환경연구원 반응부 교수는 "최근 낙동강 하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형 변화에 대한 면밀한 조사,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장기적 관점에서의 대책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부산일보, 2015-11-16)

경기 파주시 파주시는 '임진강 준설사업 추진위'가 준설을 추진해 달라는 탄원서 연명부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는 내용의 보도 자료에 서명인원을 부풀리고, 사진 속 담당과장 얼굴을 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 얼굴로 합성한 사진을 배포해 물의를 빚음. 하지만 시는 윗선을 제외한 담당부서에 대한 징계로만 매듭지으려 한다는 의혹을 받음. 노현기 임진강준설반대시민대책위 사무국장은 "중대한 사안이 담당국장의 개입 없이 과 기획, 마무리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며 "부하직원에게만 책임을 미루는 한심한 고위공무원"이라고 꼬집었다. (인천일보, 2015-12-25)

해양

속초시 속초시는 속초항 내 7만 톤 급 크루즈선의 입출항을 위해 속초항수역 내 8617 m³를 준설 중에 있고,

올해 5월에 완성될 예정임. 나아가 10만 톤 급 크루즈 부두 건설 방안을 건의, 이번 년도 6월 수정계획이 확정 될 예정임. 또 유지공사 중 활어 폐사 등 어업인 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해수 인입관을 외항 쪽으로 설치함. (브레이크뉴스, 2016-02-28)

서해병 해역 해양수산부는 육상폐기물에 의해 심하게 오염된 지역위주로 준설토 피복기법을 사용함. 준설토 피복기법이란 오염된 퇴적물을 양질의 준설토로 덮어 해저생태는 복원하는 정화 기법임. 그리고 이 기법을 통해 오염지역 복원 가능성을 확인함. 저서생물 건강도 지수는 1등급으로 회복 되었으며, 표층 중금속 농도도 6분의 1로 줄어듦. (건설타임즈, 2016-02-26)

인천 중구 초대형 화물선 입항이 자유로운 인천신항에 선광컨테이너 터미널에 이어 17일 한진 인천컨테이너 터미널이 개장됨. 그리고 세계 최대 규모의 대형 화물선 입항이 가능하도록 항로 수심을 기존 14 m에서 16 m로 하는 준설공사가 시작됨. 해저에서 퍼 올린 흙을 활용해 211만 m² 규모의 신항 배후 물류단지를 2020년까지 조성하게 될 예정임. (동아일보, 2015-02-25)

전남 순천, 백건준설은 친환경 준설선과 친환경 준설토 분리장치로 해외수출 320억 달러를 달성했음. 2014년 5월 국내 최초로 수륙양용준설선을 개발했으며, 그 해 10월 방글라데시 해군 조선소와 준설선 현지생산 및 준설공사 MOU를 체결함. 앞으로는 국내 독자 기술의 해외 수출, 국내 준설선 제작 기술과 현장을 선진화할 계획임. (노컷뉴스, 2016-02-22)

전북 군산시 군산항은 2011년부터 5년 동안 4000m³준설할 예정이었지만 현재 1300m³만을 준설하고 중단한 상태임. 원래 해수청은 53번 선석~장항항 항로해역에서 2014년~ 2018년에 2000만m³을 준설 8.5m~10.5m, 농어촌공사는 항로 입구~53번 선석 해역에서 20 11년~2016년에 약 4000만m³을 준설, 13.5m~10.5m의 수심을 각각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 되어있었지만 현재 지속추진여부가 확실치 않아 재시기가 불투명한 상태임. (전북일보, 2016-02-17)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추가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 매립 공사를 시작함. 하지만 12월 준공 예정이었던 11-1공구기 40만m³정도의 토사가 부족하여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음. 인천항 항로의 경우

갯벌에서 퍼오는 흙과 달리 항로에 일정 수준 이하로 수심이 얕아져야 퍼올 수 있기 때문에 고정적이지 않아 산출하는 어려움이 부족한 토사량이 원인임. 현재 국영기업체뿐만 아니라 민간업체의 공사장에서도 토사를 확보할 계획임. 하지만 그것도 고정적이지 않아 현재 송도 11공구 2단계 사업인 11-2공구는 내년 11월 준공 예정, 3단계 사업인 11-3공구는 2017년 3월 착공해 2019년 12월 준공예정임. (경인일보, 2016-02-15)

서해안 함평 해양수산부가 관계자는 서해안 일대 주요 어항의 퇴적이 심해 선박이 상시 접안을 못한다"며 "전남에만 준설 투기장이 없어 대체 부지를 구해야 한다고 말함. 해수부는 2030년까지 사업비 470억원을 들여 손불면 학산리 앞바다에 82만2천700㎡ 규모의 준설토 광역투기장을 조성하려고 했으나. 이에 대해 무안군 주민들은 "전국 최초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무안 갯벌이 훼손되고 물길 변화로 수산자원 고갈과 해양수질 오염이 우려된다"고 반대. (연합뉴스, 2015-11-27)

인천 조달청은 '인천신항 항로증심 준설공사' 등 총 117건에 5396억원 상당 공사입찰을 집행함. 103건(93%)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 전체 공사대금 중 2000억원 상당(37%가량)을 지역 업체가 수주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규모별 발주량에서 '인천 신항 항로증심 준설공사' 등 대형공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28%가량 (1517억원) 으로 이들 공사는 최저가 입찰로 진행될 예정. (아시아경제, 2015-12-14)

전남 목포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준설토 수용을 위해 목포신항 내 준설토 투기장 축조공사를 완공. 기존 투기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총공사비 329억원을 들임으로 약 429만㎡ 투기가 가능해짐. 한편, 목포해수청이 완공한 준설토 투기장 부지 42만5000㎡가 조성되어 장래 목포신항 항만배후단지로 활용 가능함. (뉴스통신, 2015-12-24)

전북 군산시 제 3차 항만기본계획반영이 예산 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준설 차질로 군산항 운영에 대한 타격이 우려됨. 현재 군산항의 기존 투기장의 수도능력은 80만㎡미만으로 포화상태임.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난색을 표명하며, 한때 '감사원의 예산낭비 우려지적'이 있어 향후 군산항의 준설토가 새만금 산단으로 반입되지 않아야 항만기본계획에의 반영을 검토한다는 의견임. (전북일보, 2015-12-17)

충남 18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내 93개 지방어항의 연간 준설토 처리비용은 연간 465억 원으로 추정됨. 국가 어항의 경우 지역별 투기장을 확보해 주기적인 준설이 이뤄지지만 지방어항 등은 준설토 투기장 및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항 내 매몰된 토사의 준설처리가 어려움. 방파제가 해안 환경에 영향을 미쳐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 다양한 신공법 방파제 도입이 시급함. (대전일보, 2015-11-19)

울진군 기성면 구산리의 국가어항인 구산항에 대한 긴급 준설공사가 시작됨. 구산항 입구의 입출항로가 이상 너울 성 파도로 모래가 쌓이면서 선박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했기 때문. 포항지방 해양수산청은 수양해운<주>에 항구 입출항로에 쌓여 있는 모래를 채취해 줄 것을 요청함. 준설공사에 드는 비용 5억여원은 수양해운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짐. (영남일보, 2015-10-30)

도시수로 및 기타

계화도 섬진제저류지는 준설면적 33ha, 준설량 261천㎡로서 전국 최대 규모로 준설사업을 실시한 곳임. 하지만 현재, 허술한 공사 작업으로 인해 비난을 받고 있음. 세륜 세차 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도로로 토사가 흘러내려가고, 비산면지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살수 차량도 제대로 운행하지 않은 상태임. (전라일보, 2016-02-24)

나주시 삼포면 신도리 월산제는 40여 년 동안 정화 처리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채 축산업의 축산폐수가 흘러 들어 저수지로서의 기능을 상실, 용도 폐지 됐다. 이 때부터 축산오니로 인한 악취문제로 공공기관과 아파트 입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들어옴. 그래서 현재 준설사업비 145억 원을 확보해 추진 중이다. 2017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질 계획임. (광남일보, 2016-01-26)

파주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11월 말까지 임진강에서 송수관로로 대성동마을 김천 말저수지에 80만톤의 물을 담수함. 연말까지 17억원을 투입해 임진강 유역 4개 양수장 시설 보강, 백연리-김천 말저수지 8km 송수관로를 항구적 시설로 매설하며 동파서곡 양수장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시설 관리하기로 함. (한국농어민신문, 2015-10-09)

충남 논산 탐정 저수지 바닥에 쌓인 흙이 준설될 예정임. 정부는 저수율 50% 미만 저수지에 대해 준설을

하기로 하고 농식품부가 충남도를 통해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에 사업비 (중앙재해대책비)14억4000만 원을 배정. 이에 따라 농어촌 공사 논산지사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탐정 저수지 내 12만의 니토를 준설할 계획임. (대전일보, 2015-12-17)

천안시 동남구 천안시 동남구가 슈퍼 엘리노 등 이상 기후로 인한 가뭄 등을 대비하여 관내 농업용저수지 34개소 중 14개소의 준설 및 농업용 관정 10개소 개발을 마무리하여, 경작지 약 190ha에 농업용수를 원활히 공급하는 등 가뭄대비 농업용수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이번 농업용저수지 준설 및 지하수개발 사업으로 지역농민들의 가뭄 걱정 해소와 경작환경 개선이 기대됨. (금강일보, 2015-12-20)

제주시 환경시설 관리사무소는 제주 환경자원화센터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의 전용관로 및 저류조에 대한 침출수 유출사고 방지 준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 관로에 누적된 슬러지 및 유분으로 인한 관막힘으로 맨홀에서 유출사고가 발생하였음. 이에 제주시는 7천만원을 투입해 침출수 전용관로 13.7km - 저류조 4000m준설을 22일에 완료하고자 추진 중에 있음. (국제뉴스, 2015-12-07)

강원 홍천군 홍천군이 내년 봄 가뭄에 대비해 관정 169개를 추가 개발하기로 했다. 또 취입보 620개를 준설하고, 노후저수지 134개소를 보강하기로 했음. 군 관계자는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가뭄이 심각해 농작물에 적지 않은 피해를 입힌다”며 관정 개발로 영농급수대책을 마련하는 등 항구적인 시스템을 갖출 것이라고 밝힘. (강원일보, 2015-11-23)

충남 예산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인 충남 예산군 예당저수지가 내년 농업용수 부족으로 수혜면적의 50%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음. 하지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예당저수지를 채울 물도 없는 상황에서 뜬금없이 준설토가 객토에 꼭 필요하다며 준설이 시급하다고 강조해 '헛발질'을 했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음. 지금 절실한 것은 용수공급사업이지 불필요한 저수능력만 키우는 준설이 아니라는 사실을 간과한 것으로 보임. (오마이뉴스, 2015-11-02)

당정 가뭄예산 2037억원 증액...도수로 건설-저수지 준설, 정부가 가뭄 대책 예산으로 추가 투입한 2037억여원은 △저수지 추가 준설 △공주보-예당저수지 도수로 공사 △상주보 도수로 공사 등에 사용됨. 안효대

정책위 부의장은 "4대강 16개 보에 팔당댐 5배 분량의 물이 확보돼 있지만 가뭄 때문에 걱정을 해야 하는 현실"이라면서 물자원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오늘 논의는 4대강의 연장 사업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 라고 강조. (포커스뉴스, 2015-11-11)

경기 평택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2011~2016년까지 400만m³ 규모의 평택호 준설2단계사업을 계획함. 용수확보, 재해예방, 퇴적토 준설로 인한 수질개선이 목적. 준설토는 평택에 조성되는 미군기지 이전 부지의 성토 및 복토용으로 이용 할 것임. 이는 대규모 생태계파괴, 평택수질오염, 비산먼지발생, 토사운반차량으로 인한 교통안전문제 발생 우려 등을 종식시키며, 비싼 매립토의 대체로 환영 받을 만한 일일 것이다. (평택신문, 2015-11-03)

5 국외 준설기사

영국

Boaties welcome Swansea channel Dredging



Lake Macquarie boaties 은 오늘 시작하는 Swansea Channel 에 축적되어있는 거대한 모래톱을 제거하는 작업으로, 크리스마스이전 후원을 받고 있다. 이 모래톱은 Lake Macquarie 에 드나드는 것을 방해해왔다. 이 준설작업은 채널의 지속적 유지보수 작업의 일부분이며, 이 채널의 모래움직임을 결정하는 모래추적연구와 일치한다.

헌터 지역 선박 소유주 협회 위원장인 Frank Downing 은 이 작업이 크리스마스 이전에 행해지는 것이 적절한 타이밍이며,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 채널을 사용하는 것을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것은 아마 우리가 퇴적물 연구의 결과를 얻기 전, 내년 2 분기가 될 것이며, 추가적인 연구는 장기적인 솔루션이 무엇인지를 제공해줄 것이다" 라고 말했다.

(ABC news, 2015-12-14)

<원본출처:http://www.abc.net.au/news/2015-12-14/boaties-welcome-swanea-channel-dredging/7024940

BMP Steering Group Discusses Coastal Protection



Sidmouth and East Beach Management Plan (BMP) 프로젝트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해안과 홍수 방어 옵션의 선별 후보 목록 2016년 1월 15일에 이스트 데본 구 의회의 BMP 프로젝트 팀과 함께 BMP 운영 그룹 회의에 따라 개발될 예정이다.

BMP의 목적은 기존의 바다 방어가 제공하는 홍수 보호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과 동 벼랑 침식 속도를 감소시키는 것이다.

회의의 목적은 옵션의 다항목 리스트의 그들의 평가에 대한 위원회의 컨설턴트 C2HM의 보고서(보고서는 2015년 12월 Sidmouth BMP 운영 그룹으로 발송되었다)를 논의하는 것이고, 편의 시설, 재건 및 환경 문제들뿐만 아니라 비용과 기술적 문제에 대하여 CH2M에 의한 자세한 평가를 위해 앞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선별후보 목록 옵션을 고려하는 것이다.

(Dredgingtoday.com 2016-01-15)

<원본출처: <http://www.dredgingtoday.com/2016/01/26/bmp-steering-group-discusses-coastal-protection/>>

Mud dredged to prevent Dartmouth's Higher Ferry from running aground



수위가 아주 낮은 봄 파도에 Dartmouth Higher Ferry가 좌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진흙과 미사 수 톤이 1월 28일 오전 9시부터 이른 오후까지 Dart 강의 바닥에서 준설되었다. Higher Ferry 관리자 Kerry Southern는 "우리는 상황을 주시하다가 필요 시, 일반적으로,

3년마다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매우 낮은 봄 조수에 대한 선박의 결함을 방지하기 위해 준설이 필요하다." 라고 말했다.

(Dartmouth.today, 2016-02-03)

<원본출처: <http://www.dartmouth-today.co.uk/article.cfm?id=101989&headline=Mud%20dredged%20to%20prevent%20Dartmouth's%20Higher%20Ferry%20from%20running%20aground§ion=news&searchyear=2016>>

미국 플러싱베이 악취 사라진다

미 육군 공병대는 매년 여름이면 심각한 악취로 몸살을 앓던 컨즈 플러싱베이에 대해 30일 오염물 준설작업을 실시하게 될 선박을 배치하고 내년 1월까지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연방예산 1,210만 달러가 투입됐다 (한국일보, 15-12-01)



<사진출처: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51201/955902>>

Ventura Harbor gets extra \$2.5 million to dredge massive sand buildup

올해 Ventura 항구에서 강한 엘니뇨 폭풍이 약 100만 m³의 모래를 항구 입구로부터 옮겨 항구 남쪽 모래구덩이의 모래 과다를 야기했다. 오일 구조선과 상업 어선을 포함한 약 30 척의 배는 대부분 입구 폐쇄 전에 Channel 제도 부근으로 이전되었다. 여전히, 이 붕괴 때문에 일부 기업들의 경제적인 손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항구 관계자는 80만 m³ 모래를 준설하기



위해서 그리고 2017초에 계획되어있는 다른 준설작업 전 항구개방을 고수하기 위해 추가적인 2 백만 달러를 요청하고 있다.

(VC Star reports, 2016-02-09)

<원본출처: <http://www.vcstar.com/news/local/ventura/ventura-harbor-dredging-project-yet-to-start-b5cf767-19f0-6083-e053-0100007fe647-368215641.html>>

Port of Palm Beach dredging project to start next week

Lake Worth Inlet의 Riviera 해변을 기반으로 한 Palm 해변 입구쪽 항로에서 535만달러의 유지보수 준설 프로젝트가 다음주 초부터 4월 중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잭슨빌 지역의 미국 엔지니어 대변인인 Susan Jackson 은 Palm 해변 항구에서 약 20만m²정도가 준설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준설토는 Palm 해변의 북쪽 끝에 있는 남쪽 부두에 배치되어 60피트까지 확장시킨다. Great Lakes Dredge & Dock 은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미국 육군 공병단에 의해 고용되었다. Lake Worth Inlet은 대서양 항구까지 닿는다. 이 작업은 100% 연방 정부 자금이 지원된다.

(Palmbeachpost.com, 2016-02-26)

<원본출처:<http://protectingyourpocket.blog.mypalmbeachpost.com/2016/02/25/port-of-palm-beach/>>

Bayou Lafourche dredging to increase water flow progresses



사진출처: www.dailycomet.com/article/20151013/ARTICLES/151019888

Plattenville 북쪽 Bayou Lafourche에서 두 개의 준설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Lafourche, Terrebonne, Assumption 그리고 Ascension parishes의 30만명 이상의 식수를 제공하는 수로의 퇴적물정화를 위해서 밤낮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준설 작업은 주민들의 물 공급과 주변 해안 습지를 유지하기 위해 bayou에 담수 흐름을 증가하도록 설계된 bayou Lafourche에 미시시피 강 재도입이라는 대규모 프로젝트의 일부이다. Ben Malbrough는 bayou를 활성화 하기 위해 함께 작동 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닷물 제어 구조, 새로운 철도 다리와 준설을 포함한 프로젝트의 다양한 구성 요소에 진전을 보고 흥분했다. "이것은 그들의 식수원이고 실제로 대체제가 없다"고 말했다.

(houmatoday, 2015-10-13)

<원본출처:<http://www.dailycomet.com/article/20151013/articles/151019888>>

벨기에

Deme secures new dredging contracts in Egypt, Panama and Turkey



사진출처:<http://www.deme-roup.com/dredging/news/deme-secures-several-new-dredging-contracts-egypt-panama-and-turkey>

벨기에의 DEME (Dredging, Environment, Marine Engineering, 준설, 환경 해양 엔지니어링)는 이집트, 파나마, 터키에서 1억500 만 유로의 총 계약 금액과 여러 국제 준설 계약들을 확보했다. DEME 는 이집트에서 수에즈 운하당국(Suez Canal Authority, SCA) 의 의뢰 하에 미국의 Great Lakes Dredge & Dock Company 와 함께 콩고 강과 나일강에서 심화 준설작업을 수행하며, 파나마에는 Autoridad Canal de Panama (ACP) 하에서 Panama Canal 로 들어가는 태평양 입구의 확대와 심화에 대한 작업을 수행한다. 터키에서는 터키 남부 지중해의 Mersin International Port (MIP)에 도달하는 접안시설을 위한 중요한 계약을 수주했다. 이로써 항은 더 깊어진 흘수를 이용해 더 큰 선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Amazone' 와 'Uilenspiegel' 에 의해 행해지는 이 DEME 준설작업은 다음 7개월동안 접근로의 확장 및 심화작을 이용해 항의 용이한 접근성, 만과 수로의 접안뿐 아니라 선박의 선회권까지 확보할 예정이다.

(Dredging News Online, 2015-11-13)

<원본출처:<http://www.deme-group.com/dredging/news/deme-secures-several-new-dredging-contracts-egypt-panama-and-turkey>>

베트남

Binh Dinh to dredge Tam Quan seaport



Binh Dinh 인민위원회는 Hoai Nhon 지구의 Tam Quan Bac Commune에, Tam Quan 항구를 준설하는 프로젝트를 승인했다. 지구 Binh Dinh인민위원회는 프로젝트의 주요 투자자이다.

이 프로젝트는 첫 번째 2015-16년, 두 번째 2016-20년, 두 단계로 출시된다.

항구를 차단 모래는 Tam Quan 선박 대피 경로를 깨끗이 하기 위해 준설된다. 이 모래는 건설 활동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VietNamNews 2016-01-06)

<원본출처: <http://vietnamnews.vn/society/280680/binh-%C3%B1nh-to-dredge-tam-quan-seaport.html>>

말레이시아

Federal government allocate funds to dredge Sarawak River

말레이시아 연방 정부는 Kuching 항구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Sarawak 강 준설 프로젝트 RM360 만을 할당했다. 교통 장관 Datuk Seri Liow Tiong Lai 는 준설이 더 큰 선박이 항구에 정박하는 데 더 나은 접근성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초 프로젝트에 RM50만이 쓰인다고 말했다. "나는 Kuching 항구가 더 많은 운송 활동을 할 더 큰 국제 항구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기자 회견을 통해 말했다.

회견에 참석한 Sarawak 인프라 개발 및 통신 장관 Datuk Seri Michael Manyin은 Sarawak 강은 4m에서 7m 깊이이며 준설 작업이 완료되면 12-14m 깊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BERNAMA 2016-02-29)

<http://www.sandandgravel.com/news/article.asp?v1=21636>

6 회원 동향

홍기훈 고문 런던협약 및 합동과학그룹총회 참석차 Fijian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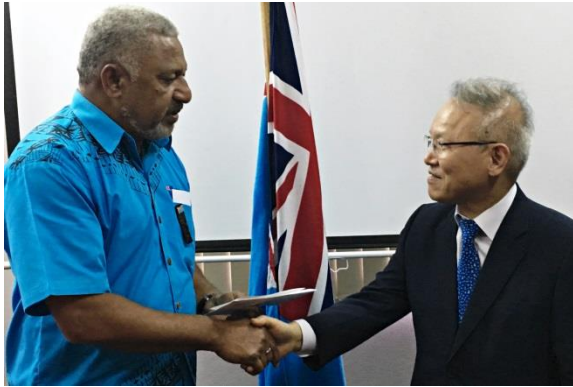
홍기훈 고문(KIOST 원장)과 (왼쪽부터)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진평호 주무관, 항만기술안전과 김태민 사무관의 런던 협약 및 합동과학그룹 총회 참석

홍기훈 환경준설학회 고문(KIOST 원장)은 지난 2016년 3월 제39차 런던협약 및 의정서 합동 과학그룹총회 참석을 위하여 정부대표단의 일원으로 Fijian을 방문했다. 일정 중 주 Fijian 대사인 김성인대사와의 협의, Fijian 싸이클론 피해 성공 전달, KIOST의 Fijian 현지법인 방문이 있었다.

주 Fijian 대사와의 협의 주제는 남태평양 국가들에 대한 KIOST의 기술지원이었다. 김성인 대사는, Kiribati는 OTEC (해양 온도차 발전 시스템) 이외엔 전기문제에 별다른 대안이 없기에 도서 별로 적정 장비를 통해 분산 자원을 제공하는 편이 유리하다고 설명하였다.

김 대사는 self-contained solar/wind 가로등을 KIOST에서 Kiribati등에 지원하여 모범 사례를 보여주고 태평양 도서국에 수출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는데, 이는 무려 연 200억불 규모의 시장이라고 한다. 또한 Fijian나 PNG(파푸아 뉴기니)와 같은 큰 나라에는 목재펠릿과 같은 바이오매스 에너지 공장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대사는 KIOST의 태평양 진출을 위해 에너지 자립섬 구축 기술 및 KIOST의 태평양과학기지 (마이크로네시아 연방, 축 주, 웨노섬)에서 연구한 산호 보전 방안을 Fijian에도 전달해줄 것을 요망했다. 또한 도서국가에서 전기·물·기상재해예보에 필요한 자립기반 인프라를 KIOST에서 개발 한 후 이전하는 방안이 유망하다고 판단되며, 남태평양 국가들에 KIOST의 선도기술 전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홍기훈 고문은 현재 해수부와 협의 중인 열대해양과학프로그램 (일명 K-Tropicana) 사업을 통해 해양기상감시 및 2 단계 해색위성 관측결과를 태평양도서국에 전달하여 이들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답변했다.



홍기훈 고문(KIOST 원장) Fiji 사이클론 피해복구를 위한 성금 전달

3월 9일에는 Fiji 사이클론(‘윈스턴’)에 대한 피해복구 성금 전달이 있었다. 성금을 직접 접수한 피지 수상에게 홍기훈 고문은 “큰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며, KIOST 직원들의 정성을 전달한다”고 했으며, “KIOST는 앞으로 ‘해양분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필요한 기술을 Fiji 등 태도국들에 이전하고, K-Tropicana 연구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기훈 고문은 KIOST 열수광상법사업의 Fiji 현지법인 사무실을 방문하여 방장완 현지법인 대표에게 현지상황을 보고받았다. 태풍 윈스턴의 피해현황에 대한 논의에서 방 대표는 Fiji가 윈스턴 같은 태풍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태풍에 견딜 수 있는 주택 건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방 대표로부터 2014년, 참치어선과 중국 선박, 산업단지 때문에 오염된 Suva항의 오염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어서 방 대표로부터 2014년, 참치어선과 중국 선박, 산업단지 때문에 오염된 Suva항의 오염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Suva항에 대한 오염퇴적물 정화사업과 항만 환경관리에 관한 사업을 고려해 보겠다고 첨언했다.

이번 일정 중 홍고문은 정부대표로 같이 참석한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의 김태민 사무관과 준설토의 재이용에 관한 주제로 의견을 나누었다. 김 사무관은 항만



방장완 KIOST Fiji 현지 법인사무 소장과 홍기훈 고문(KIOST 원장), 정창수 부회장(KIOST), 김태민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 사무관, 김창준 회원(KIOST) 준설토 재이용에 관한 회담 중

개발 및 항로준설, 신항만 건설 등으로 인하여 준설토 발생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대량의 준설토를 자원화하여 갯벌이나 해양환경 복원에 능동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홍고문은 이러한 정책에 대하여 동감하며, 선진국의 경우 생태환경복원의 개념으로 준설토를 활용하는 다양한 시도가 있음을 언급하고, 이를 위해 한국환경준설학회와 KIOST에서 기술적, 학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글: 정창수(한국환경준설학회 부회장/KIOSK 환경복원연구본부 본부장)

임지영(한국환경준설학회 간사/KIOST 연구원)

최진영(한국환경준설학회 총무이사/KIOST 선임연구원)

사진: 김창준(한국환경준설학회 평의원/KIOST 선임연구원)

※ 회원 중 동향을 신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한국환경준설학회 편집위원회 사무국으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031-400-6152 keds2011@naver.com

세계 준설 협회 총회 2016
**WODCON XXI - "Innovations in Dredging" - June 13
 - 17, 2016 - Miami, FL**

WODCONs, the only worldwide events dedicated exclusively to dredging and maritime construction, provide a unique platform for researchers and practitioners from industry, academia and governments to meet and discuss dredging.



WHO WILL ATTEND?

WODCON XXI will bring together expert representatives of manufacturers, universities, research institutes, consultants, public authorities and contractors working in the dredging, navigation, coastal and inland flood protection, deep-sea mining, offshore wind energy, oil and gas production fields and providers of a broad range of services such as brokers, insurers, financiers, lawyers, and many more.



(사)한국환경준설학회 단체회원 소개 (가나다 순)

 <p>㈜신대양 http://www.sindaeyang.co.kr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평동 16번길 67번지 TEL 051-266-3306, Fax 051-266-3310</p>	 <p>㈜에이치플러스에코 http://www.hpluseco.co.kr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호수로 222 제이타워 TEL 02-2037-2986, Fax 02-2037-2979</p>
 <p>㈜이구건설 경상남도사천시 사남면 월성리 9-7. TEL 055-855-0040, FAX 055-855-0042</p>	 <p>(주)지오시스템리서치 GeoSystem Research Corporation http://www.geosr.com/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1-40 한림휴먼타워 306 호 TEL 070-7019-0600, Fax 031-479-7410</p>
 <p>해난구조업, 해상운송, 수중공사업 THE KOREA SALVAGE CO., LTD.</p> <p>㈜코리아살베지 http://www.korsal.com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1동 해기사협회301호 TEL 051-441-0801, FAX 051-441-9786</p>	 <p>(주)코오롱워터앤에너지 http://www.kolonwe.com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송도테크노파크 IT센터 S동 23층 TEL 032-622-8140, Fax 032-622-8399</p>
 <p>㈜토양자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디 오슈페리움 오피스동 1305호 TEL 02-714-7221, FAX 02-782-5642</p>	 <p>해양생태기술연구소 http://www.marine-eco.co.kr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191 동명빌딩 1,4 층(용당동 485-1) TEL 051-611-6200, FAX 051-611-0588</p>
 <p>EcoDredge 한국대리점, ㈜프런티어오프쇼어서비스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면 칠강로 220-12 TEL:054-275-1917, FAX:054-281-1297</p>	 <p>㈜HN 전라남도 여수시 중흥동 750-3 TEL 061-691-5656, FAX 061-691-2727</p>